

신학전공 학생과 비신학전공 학생간의 기독교인성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신앙특성변수와 채플 만족도 중심으로)

한만오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A study on factors how Christian characteristics affects between christian theology major students and non-major students. (focused upon faith characteristic variable and chapel satisfaction)

Man-oh Han
Baekseok University, Division of Christian Studies

요 약 본 연구는 신학과 학생들과 비신학과 학생들 중에서도 기독교인 학생들에게 기독교인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기독교인성에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신앙특성변수와 채플 만족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신앙특성변수와 채플 만족도가 기독교인성에 미치는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신학과 학생들과 비신학과 학생들 간에는 어떤 것들이 기독교인성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B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신학과 학생들이 비신학과 학생들보다 기독교인성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왔고, 채플 만족도, 개인적인 기도시간, 묵상시간, 성경읽기시간이 길수록, 교회활동이 많을수록 기독교인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주제어 : 기독교인성, 채플만족도, 신앙특성, 기도시간, 성경읽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a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christian characteristics among christian theology major and non major students. Among the diversity factors, especially focused on studies of faith character variable and satisfaction of chapel, and how much these factors affect and how it correlates and what affects the most between christian theology major and non major students. This study has been surveyed to students who are enrolled in B University. As a result, christian theology major students have larger portion of Christian characteristics than non major students. Additionally students who are satisfied with chapel, having personal prayer time, meditation time, spending longer hour with bible and involving church activities have highly established christian personalities upon students.

Key Words : Christian character, Chapel satisfaction, Faith characteristic, Prayer time, Meditation time

* This research is supported by Baekseok University.
Received 29 July 2016, Revised 31 August 2016
Accepted 20 September 2016, Published 28 Sept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Manoh Han
(Baekseok University, Division of Christian Studies)
Email: hanmanoh@b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최근 학생들의 학교폭력, 게임 및 인터넷 중독, 욕설의 일상화 등의 현상들은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1]. 최근 학생(청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 추세는 점점 더 저연령화되고 있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는 연구결과보고도 나왔다[2].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3]와 양명희의 학생들의 욕설실태의 결과[4]들을 살펴보면 인성교육의 부재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에는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생겼다. 인성교육진흥법은 ‘건건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인성교육의 부재로 인한 문제와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고, 인성교육을 소홀히 했고, 이제부터라도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높고 대학생의 숫자도 높지만 인성과 행복지수는 높은 편이 아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나 기업에서는 인재다운 인재가 부족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한민국의 학교교육이 교육열은 높고,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은 만들지만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들을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마땅한 성품을 길러 주는 교육’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2015년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서 국가와 지방단체,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의무화하게 하였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는 “교육의 목적은 인간을 만드는데 있다”고 했다[5]. 이것은 대한민국의 교육의 목적과 방향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게 하는 말이다.

조벽은 “글로벌 창조 시대에서 인성이 진짜 실력이다”[6]라고 강조하면서, 그는 “인성교육은 학교 폭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단기적인 효과는 없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거의 유일한 대책이다.”라고 언급했다[7]. 이영숙은 한국형 12성품교육이 유아의 인성개발에 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한국형 12성품교육을 받은 그룹이 받지 않은 그룹보다 인성개발에 있어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다[8].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주는 의미는 인성교육의 효과,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해 주는 것이

다. 1921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 터먼(Lewis Madison Terman)연구팀은 초중고학생 25만 명 중에서 IQ 135이상 되는 영재들만 1,521명을 평생 추적하였다. 그 연구결과 그들의 대부분은 자라서 최고의 엘리트가 되기는커녕 아주 평범한 직업인이 되었다. 그래서 터먼 연구팀은 “성공은 지능이 아니라 성격과 인격, 기회포착능력이 좌우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9].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어릴 때의 도덕교육에 의해 바른 성품이 만들어질 가능성 때문에 지속적인 인성교육이 필요하다[10]. 빌 하이벨스는 “인격은 이 세상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굳건한 인격의 소유자라면 전쟁이나 굶주림, 가정파탄, 범죄, 가난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였다[11].

이와 같이 인성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대안이다. 좋은 인성교육이 대한민국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이다. 우수명은 “인성이 좋은 사람을 배출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안교육은 성품교육이 필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12].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공교육을 살리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 현용수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IQ교육 위주의 교육에서 인성교육 IQ교육 위주로, 평준화에서 능력별 교육으로, 학교 위주에서 가정교육 위주로, 비종교교육 위주에서 종교교육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13]. 인성교육 없는 IQ 교육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본 연구를 하는 목적이다.

본 연구는 특히 미래에 교회를 섬기는 교회지도자의 꿈을 가지고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의 기독교인성이 미치는 영향과 요소 등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 또한 기독교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면서 기독교인 학생들 중에서 신학전공학생들과 비신학전공학생들 간의 기독교인성이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기독교인성의 요소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기독교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설문을 통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기독교대학에서 신학전공학생들과 비신학전공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생활지도, 교회의 지도자와 사회의 지도자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것이고 더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 앞서서 B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종교가 기독교인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학전공 학생과 비신학전공 학생간의 기독교인성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개인신상과 대학생활 만족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1차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앙특성변수와 채플 만족도 중심으로 신학전공학생과 비신학전공 학생들간의 기독교인성에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설문조사 및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

본 조사는 B대학에 재학 중인 신학전공 재학생 그룹과 신학전공학생이 아닌 기독교 학생으로 선교동아리에 소속된 학생그룹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 11월부터 2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300부가 배포하여 279부를 회수하였다. 이중 불성실응답자를 제외한 273부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2.2 변수와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와 측정 변수값은 <Table 1>과 같다. 독립변수로 신앙특성변수와 채플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는 9가지 열매를 지표화한 기독교 인성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첫째, 신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앙연수, 성경읽

기시간, 기도시간, 묵상시간 및 세례여부, 교회출석동기, 주일예배 참석정도, 교회활동여부 등에 대해 설문하였다. 신앙연수는 처음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이래의 연수를 계산하여 신앙의 정도를 알아보려고 했으며, 일주일동안 예배시간을 제외하고 성경일기시간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개인적인기도시간은 일주일동안 예배시간과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별도의 기도시간을 적도록 하였다.

둘째, 채플만족도는 채플의 스타일, 설교내용 및 프로그램 등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의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셋째, ‘기독교인만의 생활 스타일로서 비기독교인과 구별되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독특한 심리 및 행동양식으로 기독교인으로서 후천적으로 계발되고 함양된 덕목에 대한 인식 정도와 태도’로 정의한다[14].

기독교인성은 Zigarelli(2005)에 의해서 개발된 크리스천 인성 지수(Christian Character Index : CCD),[15] Frazee(2005)의 크리스천 생활 분석평가 도구(Christian Life Profile Assessment Tool),[16] Brown(2008)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해당하는 목록을 작성하여 활용하였다[17]. 9가지 기독교인 인성 덕목에 각각 4개의 항목을 설정하여 3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기독교인성의 조작적 정의와 지표의 출처는 <Table 2>과 같다.

<Table 1> Variables and Measure

Variable name	Observed variables	Variable Value
Faith characteristic variable	Years of Faith(year)	Continuous variables
	Bible reading time (1week/minute)	Continuous variables
	Personal prayer time (1week/minute)	Continuous variables
	Personal meditation time (1day/minute)	Continuous variables
	baptism(yes/no)	① yes ② no
	Church attendance motivation	Nominal Scale
	Sunday worship attendance level	Nominal Scale
	Church activities(yes/no)	Nominal Scale
Chapel satisfaction	Worship styles, Sermon Contents, program, praise ministers	① very dissatisfaction ~ ⑤ very good(5-point scale)
Christian Character	9 kinds(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① not at all ~ ⑤ strongly agree. (5-point scale)

<Table 2> Christian character operational definitions and sources

Virtues	Operational definition	Source indicators
love	satisfying my self, forgiving and unconditionally loving	Frazee(2005)
joy	be joyful in any environments	Zigarelli(2005)
peace	generally enjoying freedom	Frazee(2005)
patience	responding calmly when troubles occur or expectation is not fulfilled.	Zigarelli(2005)
kindness	being generous and merciful to others	Zigarelli(2005)
goodness	making right decisions during relationship with others	Brown(2008)
faithfulness	Pursuing God's will	Zigarelli(2005)
gentleness	considering to others	Frazee(2005)
self-control	suppressing my selfishness	Frazee(2005)

3. 분석결과

3.1 표본의 속성

표본의 인구학적인 특성으로 조사대상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학생(157명, 57.9%)이 여학생(115명, 42.1%)보다 많이 표출되었다. 학년은 1학년(81명, 29.7%), 2학년(77명, 28.2%), 3학년(67명, 24.5%), 4학년(48명, 17.6%)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동아리활동의 유무는 없다(147명, 53.8%)가 있다(126명, 46.2%)보다 높았다. 학과는 신학전공 재학생(148명, 54.2%)이 비전공학생(125명, 45.8%)보다 많이 표출되었다. 출생지는 대도시(52.2%), 중소도시(37.5%), 농어촌(10.3%)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부모의 종교는 대체로 기독교(83.3%)가 높았다. 부모의 소득수준은 중수준이라는 응답이 43.2%로 가장

높았으며 중하(31.0%), 하(12.5%), 중상(11.1%), 상(2.2%)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최초 교회 출석 동기는 모태신앙(192명, 71.1%)이 가장 높았으며, 다른 사람의 전도로(62명, 23.0%), 자기 스스로(16명, 5.9%)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세례여부는 96.3%가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본의 속성은 <Table 3>과 같다.

3.2 척도분석

기독교인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결과는 <Table 4>과 같다. 모두 9가지의 요인에 대하여 대체로 요인적재량이 0.4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중에 '다른 사람에게 좋 일이 생기면 나도 기쁘다'(사랑), '진실한 인생목표가 있다'(기쁨), '온화한 사람이다'(인내), '내 목소리를 내지 않는 편'(온유)은 상대적으로 요인적재량이 낮

<Table 3> Properties of the sample

division	contents	frequency(persons)	ratio(%)	division	contents	frequency(persons)	ratio(%)
gender	men	158	57.9	department	theology	148	54.2
	woman	115	42.1		non-theology	125	45.8
	total	273	100.0		total	273	100.0
grade	1 grade	81	29.7	place of birth	big city	142	52.2
	2nd grade	77	28.2		small town	102	37.5
	3rd year	67	24.5		Rural	28	10.3
	4 grade	48	17.6		total	272	100.0
	total	273	100.0		parents income	poor	34
circles	have	126	46.2	low		84	31.0
	none	147	53.8	middle		117	43.2
	total	273	100.0	upper-middle		30	11.1
baptism (yes/no)	yes	258	96.3	high		6	2.2
	no	10	3.7	total	271	100.0	
	total	268	100.0	attendance motivation	born with faith	192	71.1
parents religious	Christian	225	83.3		myself	16	5.9
	otherwise	45	16.7		evangelism	62	23.0
	total	270	100.		total	270	100.0

<Table 4> Scale Analysis[18]

division	question	loadage	α factor
Love	God's grace enables me to forgive people who have hurt me.	0.747	0.696
	I rejoice when good things happen to other people.	0.490	
	I demonstrate love equally toward people of all races.	0.806	
	I frequently give up what I want for the sake of others.	0.744	
Joy	I am delightful person.	0.772	0.815
	I love my life.	0.861	
	I am full of joy.	0.873	
	I have true life goals.	0.542	
Peace	I know God forgives me.	0.897	0.683
	I am not angry with God, myself, or others.	0.901	
	I forgive people who deeply hurt me.	0.811	
	I have an inner peace from God.	0.871	
Patience	I am gentle minded.	0.739	0.719
	when I am angry I yell.	0.301	
	I have patience.	0.792	
	I maintain calm, even if I am stimulated.	0.839	
Kindness	I enjoy helping others.	0.764	0.753
	I help without expecting a reward.	0.746	
	Others are more important than I am.	0.774	
	Sometimes giving up money could make me happy.	0.754	
Goodness	I feel a strong compassion for those who do not have much in life.	0.776	0.723
	When I pray, I pray for the poor.	0.707	
	I am known as a person who speaks words of kindness to those in need of encouragement	0.825	
	I donate my time and/or money to help the needy expecting nothing in return	0.679	
Faithfulness	I pray when there is stress.	0.808	0.826
	I seek the will of God in prayer.	0.886	
	I know God what wants from me.	0.737	
	I love God with all my heart.	0.815	
Gentleness	I consider my own shortcomings when faced with the failures of others.	0.497	0.523
	I tend to listen to other people's favor well.	0.780	
	I tend listen other's opinion.	-0.082	
	I allow people to make mistakes.	0.797	
Self-control	I am not addicted to any substances - whether food, caffeine, tobacco, alcohol, or chemical.	0.698	0.660
	I do not burst out toward others in anger.	0.708	
	I do not have sexual relationships that are contrary to the teaching of my faith community.	0.623	
	I control my tongue.	0.806	

은 편이면서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거하면 신뢰도 계수가 상승하는 문항은 제거하고 분석에 투입하였다.

3.3 평균차이 분석

1) 신앙 변수에 따른 기독교 인성 차이 분석

신앙관련 변수에 따라 기독교 인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과 같다. 먼저 신앙년수, 출석동기, 세례여부는 기독교 인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부모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가 그 외의 종교나 무교인 경우보다 기독교인성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학생들의 성경읽기 시간이 길수록 기독교인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p<0.01), 1주일동안 29분이하의 경우는 60~119분, 120분이상보다 낮은 기독교 인성 수준을 보였다. 셋째, 개인적인 기도시간이 길수록 전반적으로 기독교인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p<0.01). 넷째, 개인적인 묵상시간은 묵상시간이 없는 경우보다 30~59분사이의 묵상시간이 갖는 경우에 보다 높은 기독교 인성 수준을 보였다. 다섯째, 주일예배참여정도에서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다른 사례보다 기독교 인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교회활동에서 예배만 참석하는 경우보다 예배이외 친교, 회의, 봉사활동 등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기독교 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Table 5> The character changes among religious variable

variable name	observed variables	average (standard deviation)	T/F(scheffe)
years of faith	less than 20 years	3.71(.50)	-.362
	above 21 years	3.73(.46)	
the religion of parents	Christian	3.76(.47)	2.451 *
	other religion	3.57(.49)	
attendance motivation	born with faith	3.77(.46)	2.953
	myself	3.78(.30)	
	evangelism	3.60(.53)	
baptism(yes/no)	yes	3.74(.48)	1.811
	no	3.47(.34)	
bible reading time	less than 29 minutes (a)	3.55(.55)	5.769** a<c, a<d
	30~59 minutes (b)	3.70(.39)	
	60~119 minutes (c)	3.78(.46)	
	above 120 minutes (d)	3.87(.43)	
prayer time	less than 29 minutes (a)	3.49(.57)	11.612*** a<c, a<d, b<d
	30~59 minutes (b)	3.60(.35)	
	60~119 minutes (c)	3.78(.44)	
	above 120 minutes (d)	3.91(.42)	
personal meditation time	none (a)	3.53(.52)	3.519* a<c
	1~29 minutes (b)	3.76(.48)	
	30~59 minutes (c)	3.80(.44)	
	above 60 minutes (d)	3.75(.45)	
Sunday worship attendance level	attending weekly (a)	3.43(.60)	4.051**
	2~3times in month (b)	3.43(.35)	
	1 time in month (c)	3.41(.56)	
	not attending (d)	3.77(.46)	
church activities	only attending service	3.57(.54)	-3.064**
	attending service and activities	3.78(.45)	

* Reference : * p<0.01 **p<0.01, *** p<0.001

2) 변수별 신학 전공 학생과 비전공학생간 평균 차이 분석

신학전공 학생과 비전공학생간의 변수별로 평균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특히 기독교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특징적인 변수를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신앙변수로 측정된 신앙연수에서는 신학과 학생이 비전공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성경읽기시간과 개인적인 기도시간, 묵상시간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첫째, 채플만족도는 신학과 학생보다 비신학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차이를 보였다.

둘째, 기독교 인성을 구성하는 하위 덕목에서 ‘인내’와 ‘은유’, ‘절제’덕목을 제외하고 신학과 학생이 비신학과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였다. 신학 전공학생의 기독교 인성 덕목의 평균점수

가 높은 순서는 ‘은유’, ‘충성’, ‘기쁨’, ‘성실’, ‘친절’, ‘절제’, ‘평안’, ‘인내’, ‘사랑’의 순이며, 비신학과 학생은 ‘은유’, ‘기쁨’, ‘성실’, ‘충성’, ‘절제’, ‘친절’, ‘평안’, ‘인내’, ‘사랑’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인 기독교 인성에서도 신학과 학생이 비신학과 학생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기독교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독교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신학과 전공학생과 비신학과 학생간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다. 먼저 신학과 학생의 경우, 회귀모형의 설명력(R²)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다만 채플만족도만이 기독교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비신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

<Table 6> The average of difference between Christian Theology major and non major students among variable(T-value)

division	variable name(units)	average (standard deviation)		T-value
		theology	non-theology	
Faith characteristic variable	Years of Faith(year)	19.4(5.3)	16.5(7.9)	3.51**
	Bible reading time (1week/minute)	121.2(133.3)	33.4(57.8)	7.04***
	Personal prayer time (1week/minute)	127.9(135.7)	45.5(52.0)	6.66***
	Personal meditation time (1day/minute)	57.0(105.3)	25.0(36.4)	3.38**
Chapel satisfaction		3.4(0.7)	3.7(0.8)	-3.59***
Christian Character	love	3.5(0.7)	3.1(0.7)	3.47**
	joy	3.9(0.7)	3.7(0.7)	2.33*
	peace	3.7(0.6)	3.5(0.7)	3.69***
	patience	3.5(0.7)	3.4(0.7)	1.01
	kindness	3.8(0.6)	3.5(0.6)	3.55***
	goodness	3.9(0.6)	3.7(0.6)	2.35*
	faithfulness	4.0(0.6)	3.7(0.9)	3.14**
	gentleness	4.1(0.5)	4.1(0.6)	1.27
	self-control	3.7(0.7)	3.6(0.7)	1.70
	total	3.8(0.4)	3.6(0.5)	3.47**

* Reference : * P<0.05, ** P<0.01, *** P<0.001

<Table 7> Influencing factors of christian characteristics (division of theology major and non major students)

division		theology student			non-theology student		
		β	t	sig.	β	t	sig.
constant			1.813	.073		2.697	.009
Faith characteristic variable	the religion of parents ¹⁾	-.020	-.208	.836	.237	1.543	.127
	phone numbers stored in mobile phones	-.017	-.172	.864	.186	1.849	.069
	years of faith	-.002	-.012	.991	-.174	-.699	.487
	Bible reading time	.040	.317	.752	.067	.615	.540
	prayer time	.086	.703	.484	.328	2.502	.015
	meditation time	-.065	-.652	.516	.062	.541	.590
	baptism(yes/no) ²⁾	.119	1.216	.227	-.089	-.789	.433
	sunday worship attendance level	.074	.743	.459	.002	.015	.988
	attendance motivation ³⁾	-.077	-.457	.649	.137	.670	.505
	church activities ⁴⁾	-.060	-.603	.548	.031	.299	.766
Chapel satisfaction		.215	2.153	.034	.294	2.865	.005
			R ² = .212 F = 1.416			R ² = .436 F = 2.786**	

* Referencel : 1) standard variable = christian, 2) standard variable = baptized, 3) standard variable = bron with faith, 4) standard variable = only attending service

* Reference2 : ** P<0.01

에서는 회귀모형의 설명력(R²)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이면서 기독교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

인적인 기도시간, 채플만족도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B대학에 재학 중인 신학과 학생그룹과 비신학과 학생그룹(기독교인 학생그룹)간의 기독교인성과의 연관성이 무엇인지,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설문을 토대로 분석하고 조사하였다. 특별히 신앙 특성변수와 채플 만족도가 두 그룹 간에 기독교인성에 미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앙년수, 출석동기, 세례여부가 두 그룹의 기독교인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을 나타냈다. 하지만 부모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는 무교나 타 종교를 가진 부모보다는 기독교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를 분석해 볼 때, 형식적인 교회생활, 신앙생활, 교회에 다닌 기간은 기독교인성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 개인적인 성경읽기시간, 기도시간, 묵상시간이 길수록 기독교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학과 학생들이 비신학과 학생들보다 성경읽기시간, 기도시간, 묵상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성경읽기와 성경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이 기독교인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학과 학생이나 비신학과 학생들의 기독교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성경읽기시간과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신학과 학생들이 비신학과 학생들보다 기독교인성이 높은 이유가 성경읽기, 기도, 묵상시간이 더 길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주일예배에 더 자주 참여하는 학생이 참여가 적은 학생보다 기독교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회활동에서 단지 예배만 참석하는 학생보다는 친교, 회의,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수록 기독교인성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독교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일예배, 교회에서의 친교, 회의, 봉사활동 더 많이 참여를 하도록 가르치고 권유하는 것이다.

넷째, 채플만족도는 신학과 학생들이 비신학과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이 두 그룹 모두 채플만족도가 기독교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학과 학생들의 기독교인성 척도 평균점수도

비신학과 학생들보다 전체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신학과 학생들이 비신학과 학생들보다도 채플만족도와 기독교인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신학과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들이 신학, 성경, 성경묵상, 기도에 관한 공부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독교대학에서는 기독교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플만족도를 높이는 조건, 요소, 이유 등을 더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채플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Baekseok University

REFERENCES

- [1] Hyun Ju, "The Significance and Challenges of Korea Character Education"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Vol. 9, No 2, pp. 1-14, 2012.
- [2] Kim, Eun - Kyung. "Youth Hope World Vision outh Hope 2030", National Youth Commission. 007.
- [3]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first School Violence Survey,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website registration data," 2012.
- [4] Myeong-hui, Yang. "The reality of using abuse language in school and purification measure", study report from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CR 2010-36, 2010.
- [5] Hong-jin, Kim, "18 kinds of virtues of character education", Publishing essays, pp.8, 2015.
- [6] Yeok, Job "Personality is the ability" Publisher haenaem pp.18, 2016.
- [7] Yeok, Job "Personality is the ability" Publisher haenaem pp.21, 2016
- [8] Young -Sook, Lee, "Korean 12 Character Education", Good wood qualities School Publishers, pp.234-235, 2012.

- [9] Young - Sook, Lee, "Parenting Bible", Book Publishing mulpure, pp.9-10, 2010.
- [10] Hui-young, Jeong, early childhood christian education of theory and practice, Dcty books, pp.37, 014.
- [11] Hybels, Bill, "Who you are when on one's looking", IVP, pp.17, 2009.
- [12] Su-myeong, Woo, "Good Character makes world class leaders", Book publishing NCD, pp.34, 2006.
- [13] Yong-su, Hyeon, " The essence and principles of character development II", Dong-a ilbo, pp.350, 2008.
- [14] Michael, A. Zigarelli, "Cultivating Christian Character", translation Chang-Beom, Kim, International students Training, 2005.
- [15] Michael, A. Zigarelli, Cultivating Christian character: How to become the person God wants you to be and how to help others do the same. Colorado Springs, CO: Purposeful Design Publications, 2005.
- [16] Frazee, R. "The Christian life profile assessment tool workbook", Grand Rapids: Zondervan, 1998.
- [17] Brown, Tyler.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 character and Christian faith exhibited in the leadership of Illinois public school district superintendents". Th. D. Diss., Indiana State University, 2008.
- [18] Man-Oh, Han, "A study on factors how Christian characteristics affects between christian theology major students and non-major students.(focused upon personal profile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7, pp.37-43, 2016.

한 만 오(Han, Man Oh)



- 2001년 2월 :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석사)
- 2007년 5월 : 미국 Liberty University(석사, 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 관심 분야 : 인성교육, 대학생/청년 연구, 리더십

· E-Mail : hanmanoh@bu.ac.kr